





작가의 말

평소에 이런 저런 일로 자주 떨리고 낯설고 새로운 일 앞에서는 더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떨린다고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얘기하고 웃다 보면, 떨림이 용기로 바뀌었어요.
혹시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가끔 마음이 '긴장모드'가 되나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조금씩 떨리면서 살아가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해낼 거예요! (^_^)



음악 떨러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1)

발행일 2025. 11.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
글·그림 윤선경
지도작가 고진이

[비매품]

* 이 책은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2기의 결과물로
민들레작은도서관 「그림책 창작동아리 우리 곧, 작가」 활동으로 만든 그림책입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전자책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ISBN 979-11-94496-72-4(PDF 전자책)

ISBN 979-11-94496-71-7(세트)



전자책 읽기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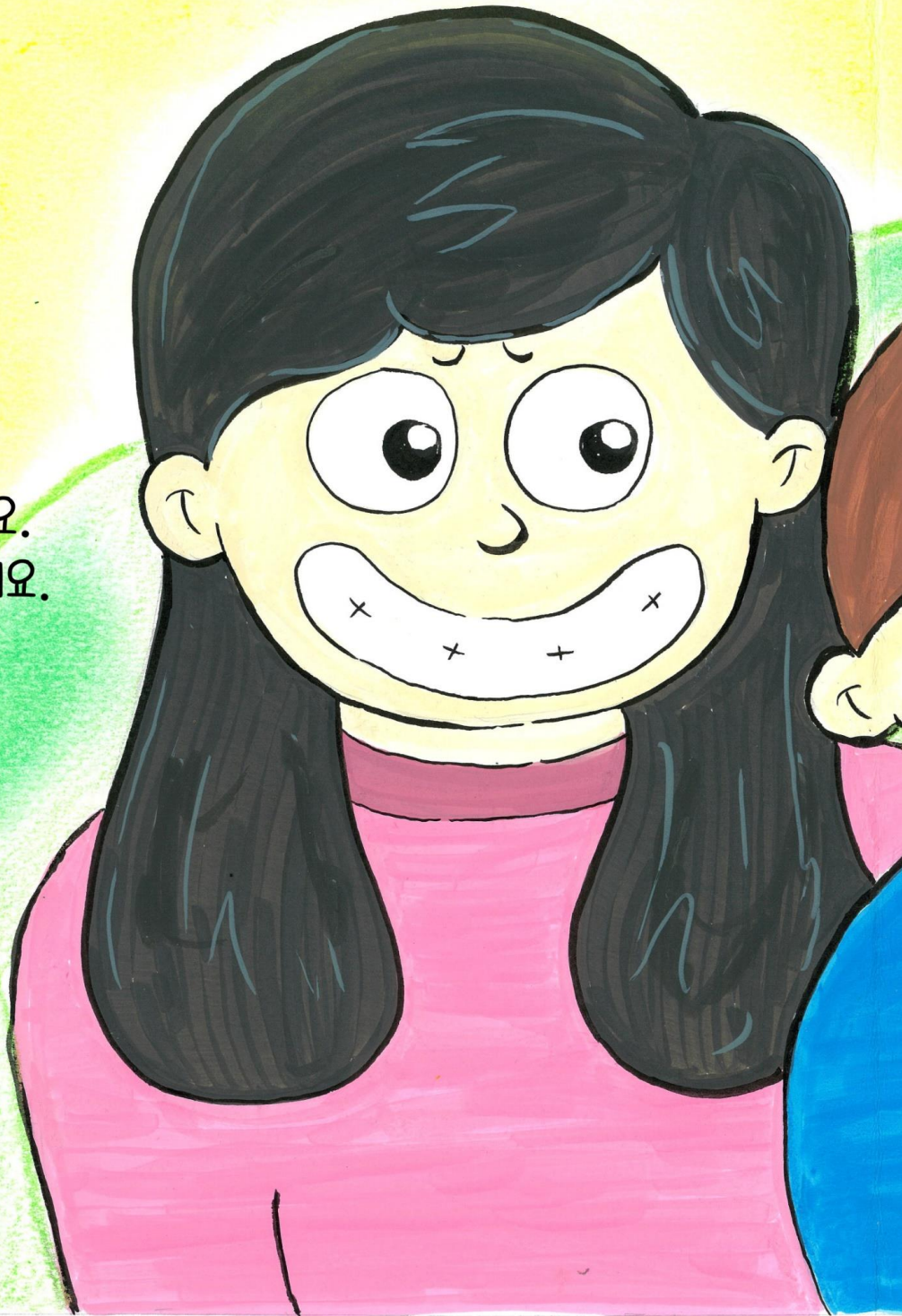
으악 떨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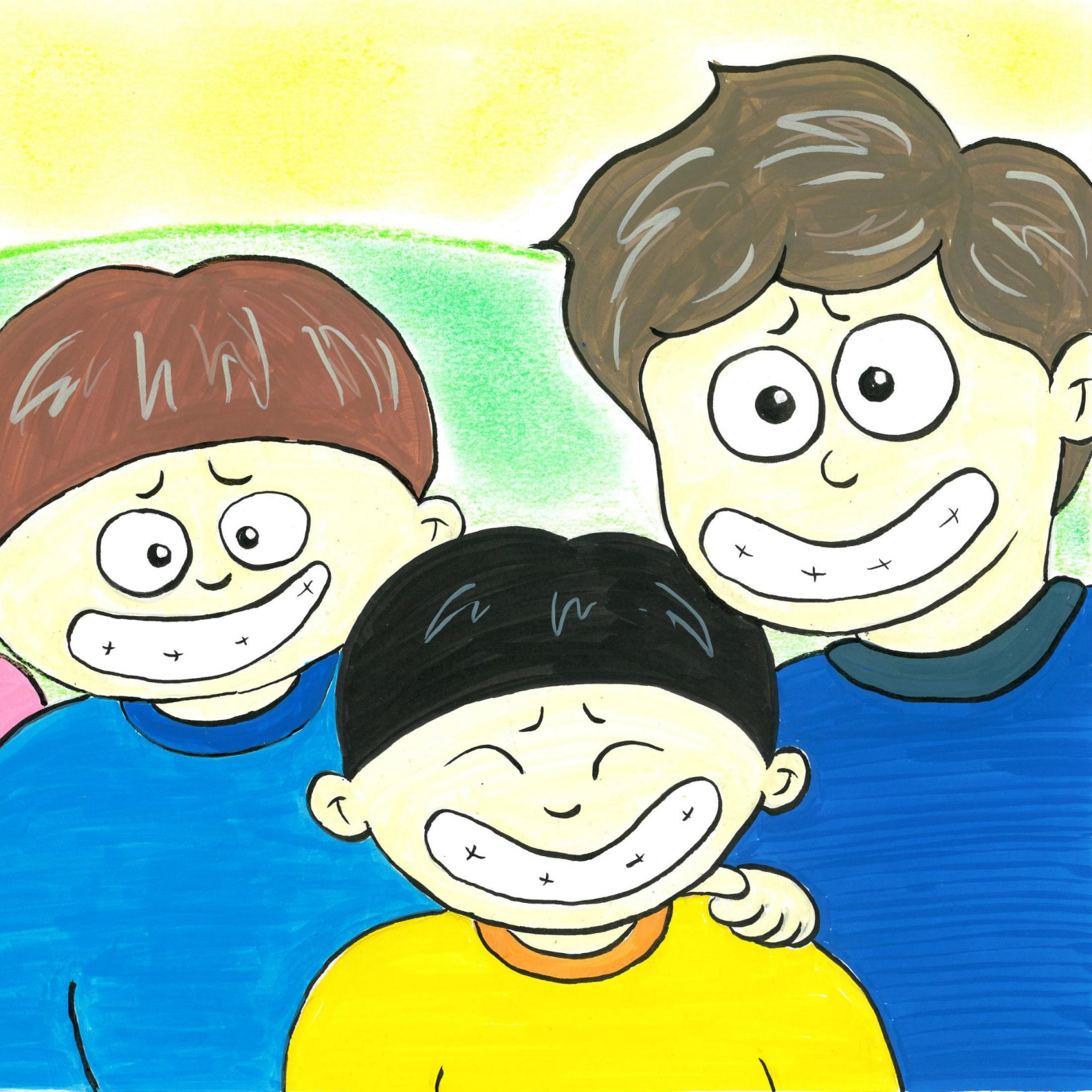
글·그림 윤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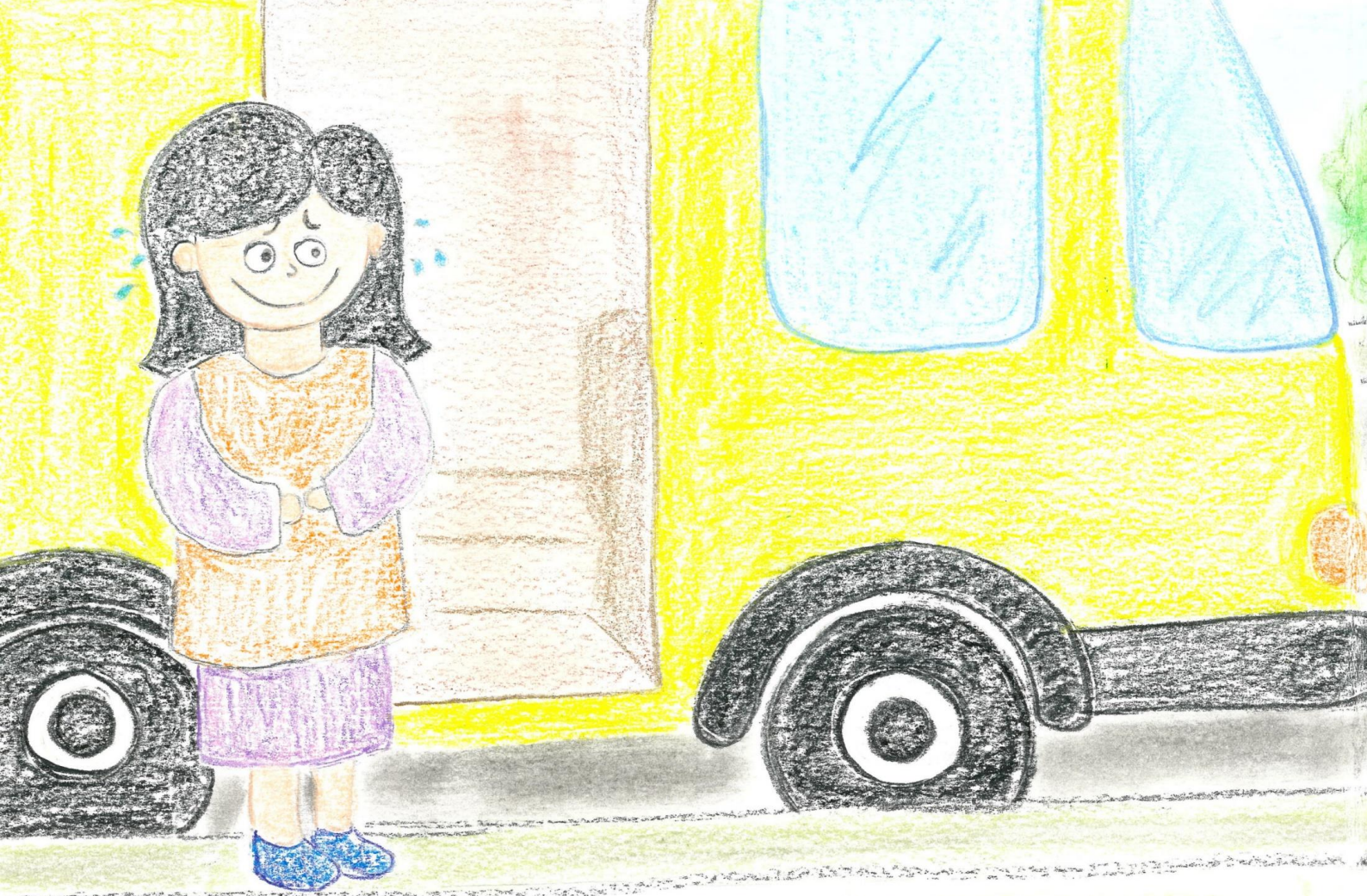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형아, 나
이렇게 네 식구예요.
음... 그냥 평범한데
조금, 아니 꽤 많이 떨려요.
브르르르... 뭐만하면 떨려요.
항상 '진동 모드'예요
뭐가 떨리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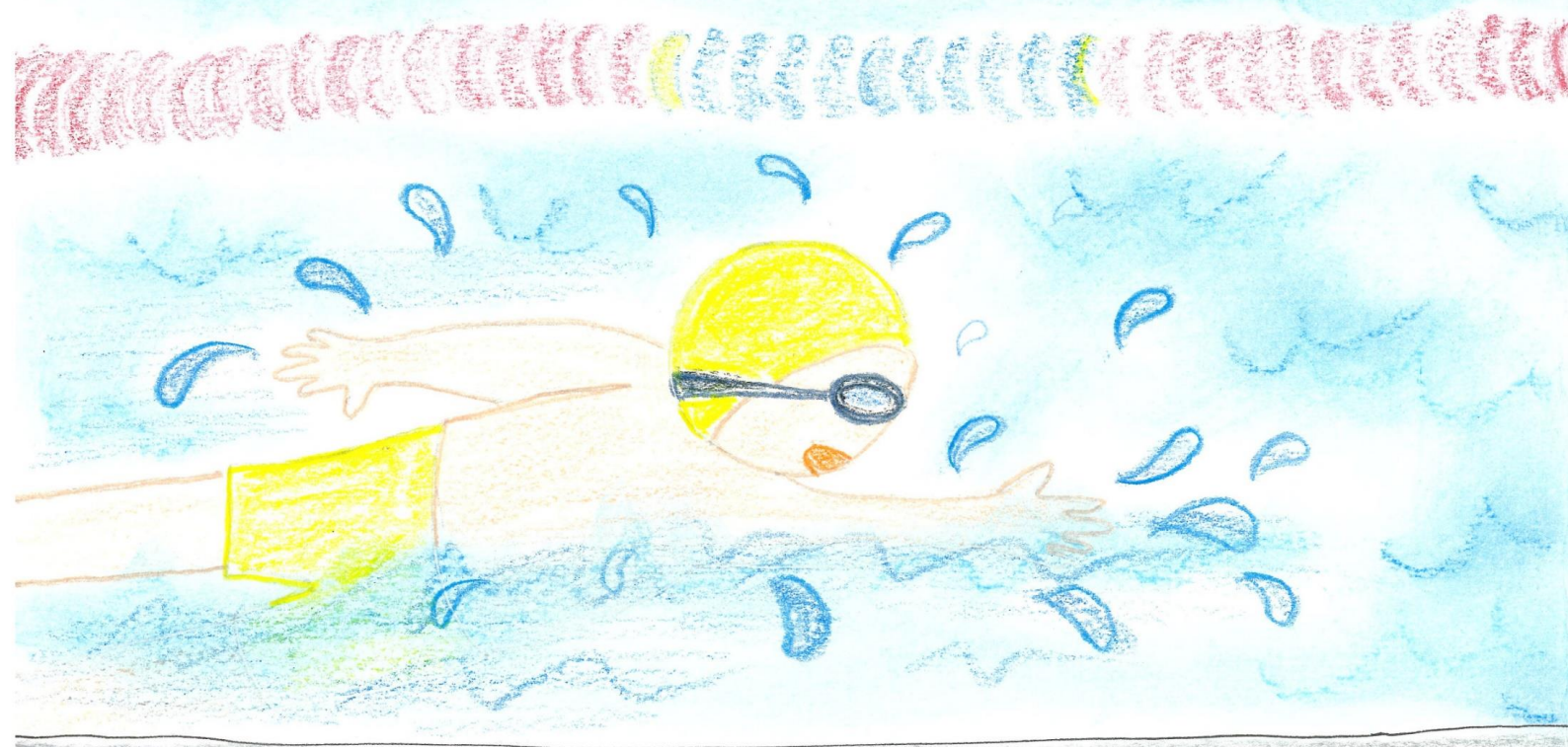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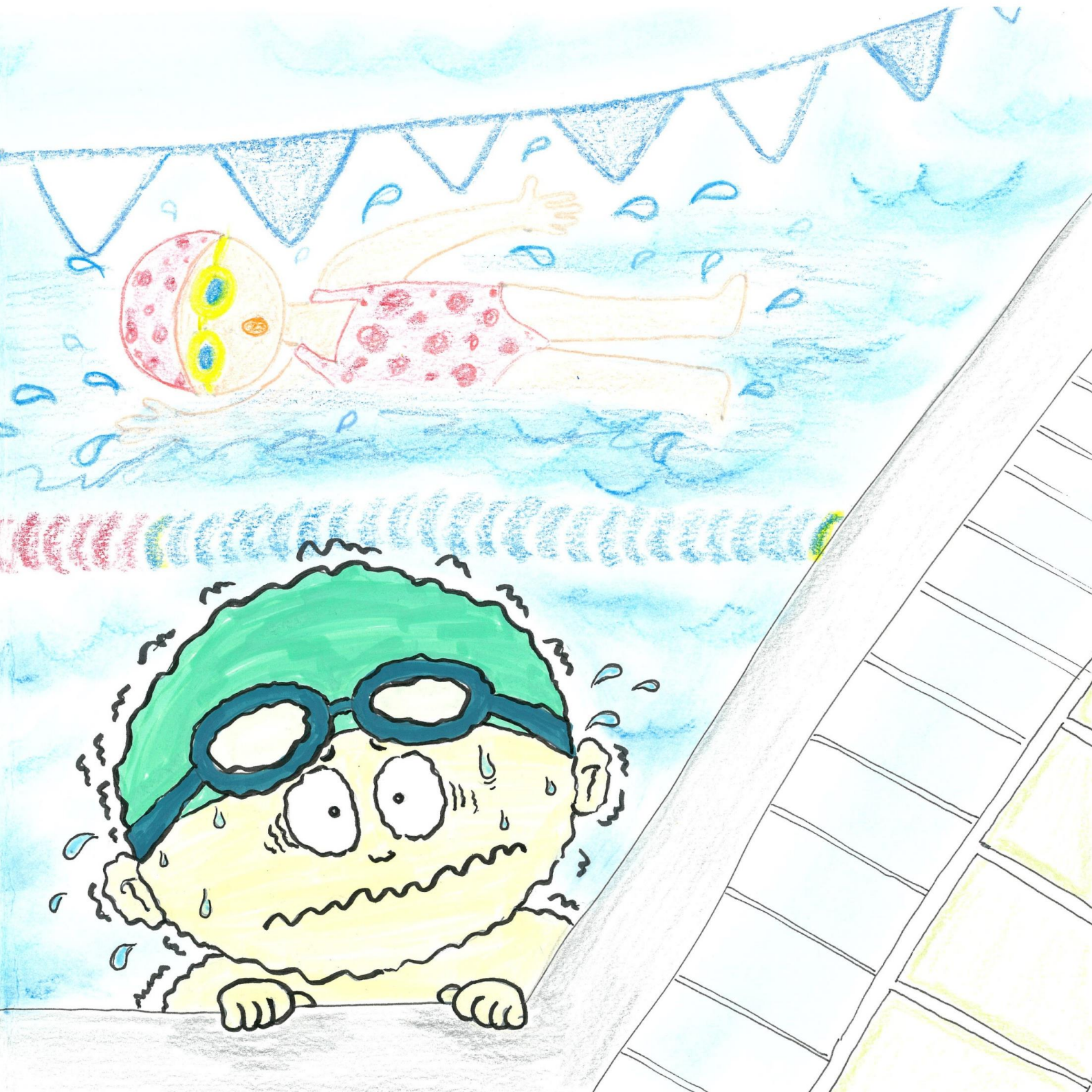


어린이집 첫날!!
엄마랑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으악!! 울면 어찌지?
속이 막 간질간질
마음이 덜컹했어요.



수영장에 갔는데요.
다들 뚱뚱 뜨는데
나만 물에 안 뜨면 어떡해요?
물속이 좀 무섭기도 했고,
몸이 자주 가라앉는 느낌...





또 뷔페에 가면요~
음식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접시를 들고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다~~ 담아 버렸어요.





사실 우리 형아도 떨 때 많아요.
웅변발표회 무대에서
'목소리가 작게 나오면 어찌지?' 하면서
형아도 마이크 앞에서 살짝
눈이 흔들렸어요.





우리 형아는 학급회장 선거에도 나갔어요.
'떨어지면 어쩌지...' 했지만
용기내서 "저를 꼭 뽑아주세요"라고 말했대요.
우와~ 진짜 대단하죠?



시험 전날엔 형아가 혼잣말 하는 걸 들었어요.

"아... 이번엔 진짜 망친 거 같은데..."

엄마가 뭐라 하실까봐

엄청 떨리는 눈치였어요.

아...
형아...
괜찮아...?
아...



어떡 하지...?



'초행길인데..이 길이 맞나?'
걱정한답니다.

경로가 이따갈 하셨습니다.....
경로가 이따갈 하셨습니다.....



이길 어디?



경로가 이따갈 하셨습니다.....

엄마도 떨리긴 마찬가지예요.
'행사 물건이 품질이면 어찌지?'



저런 내 거다.....

HOT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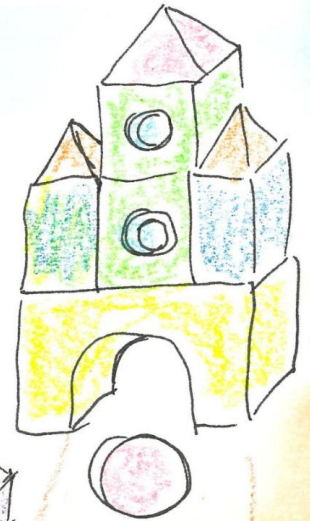
SALE

'길가다 외국인이
말이라도 걸면 어찌지?'
속으로 끔끔 한답니다.



또 형이나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엄마는 말은 안 해도, 아빠는 티는 안 내도
속으로 엄청 많이 걱정하며
떨고 계세요.

형아... 많이 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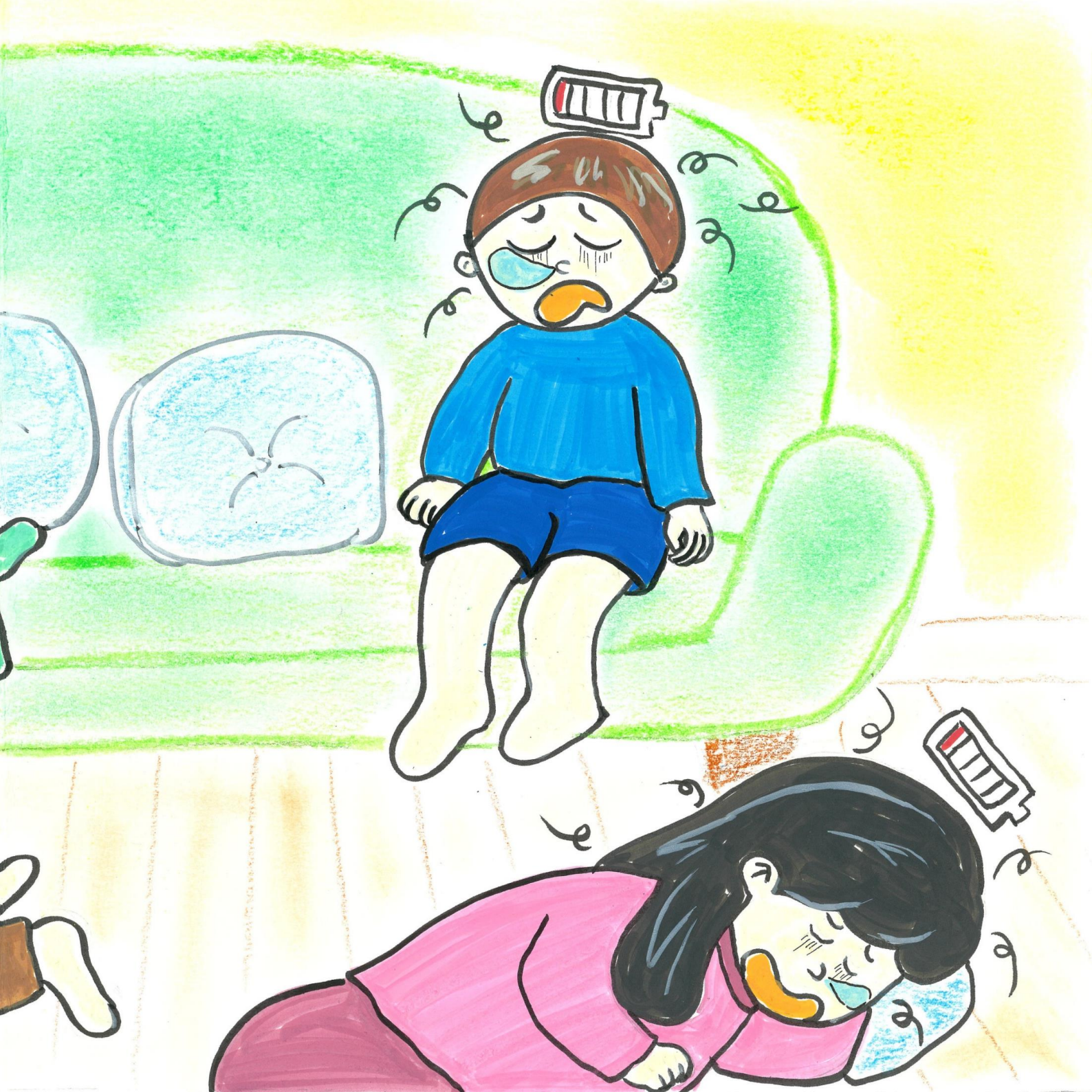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핸드폰 같아요.
항상 "진동 모드"로 살고 있거든요.
마음이 브르르르~징징~ 울려요.
하루 종일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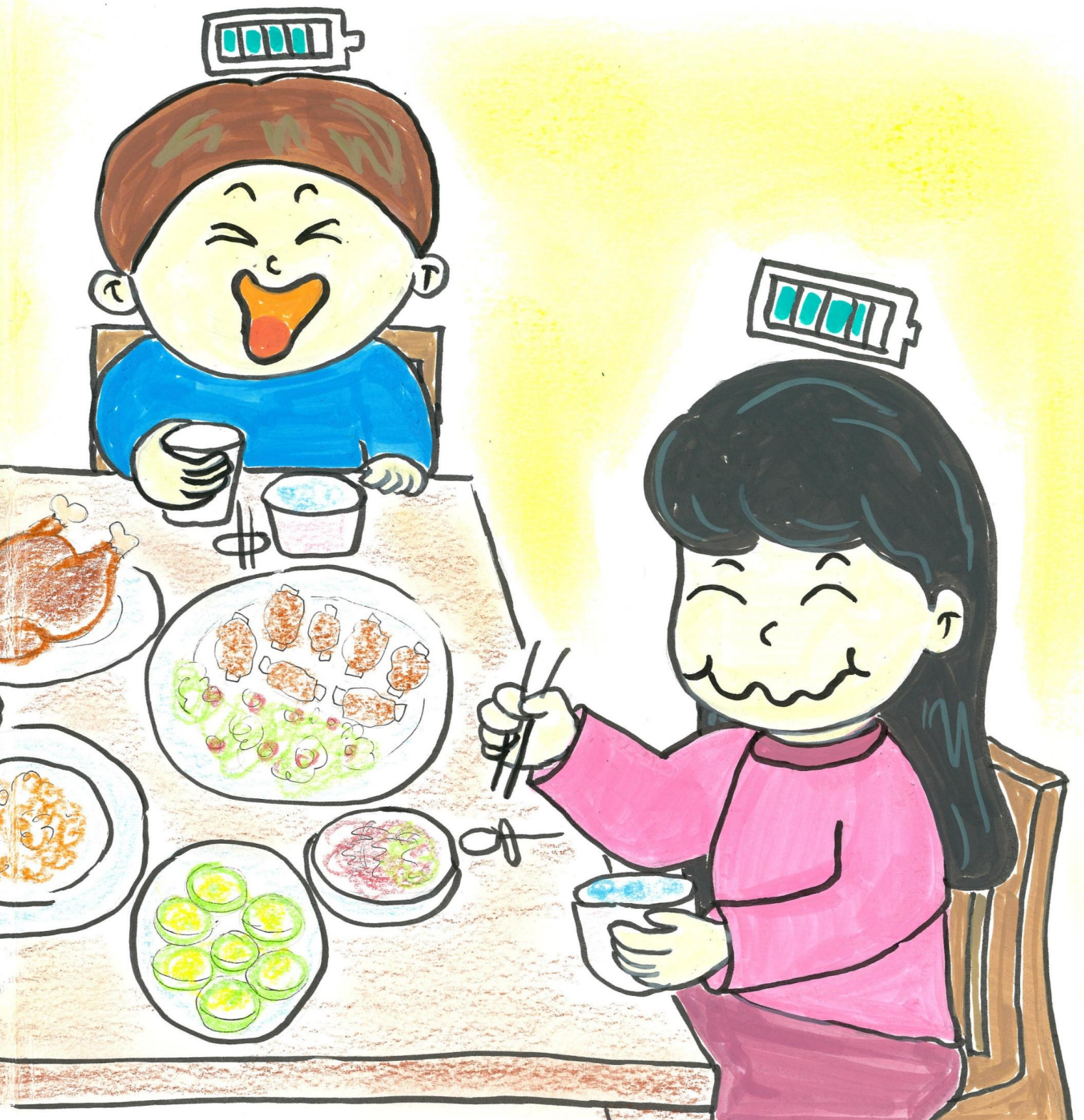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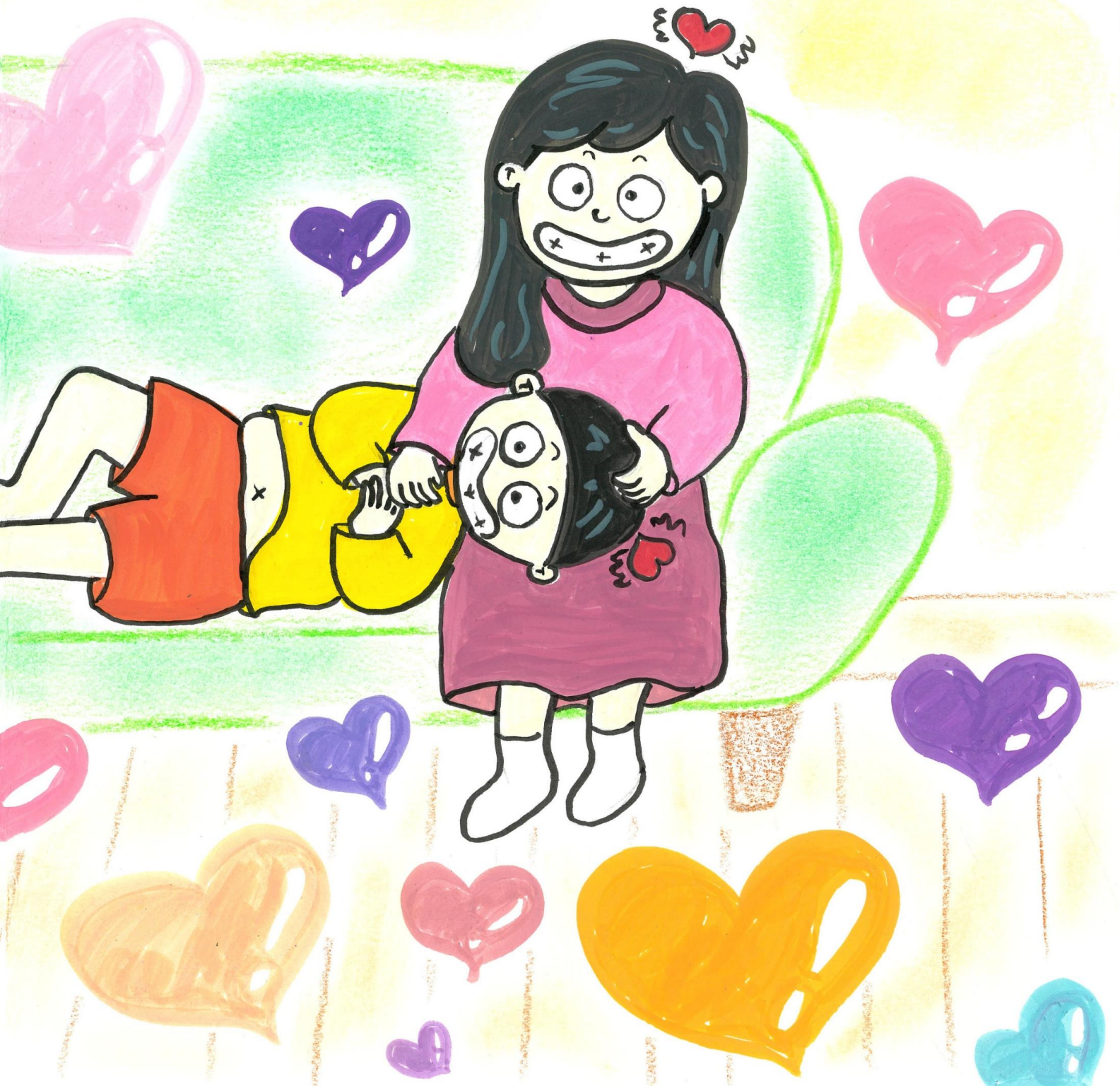
살짝 기운 차리고
다 같이 모여 맛난 밥 먹으며
"오늘 어땠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조금씩 힘이 생겨요.
"헐~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으하하하~ 웃다보면
다시 에너지 충전!!





서로 얼굴보고 얘기하다보면
마음이 충전이 돼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힘을 내요.
우린 떨어져도 괜찮아요.
말하면 풀리고 웃으면 괜찮아지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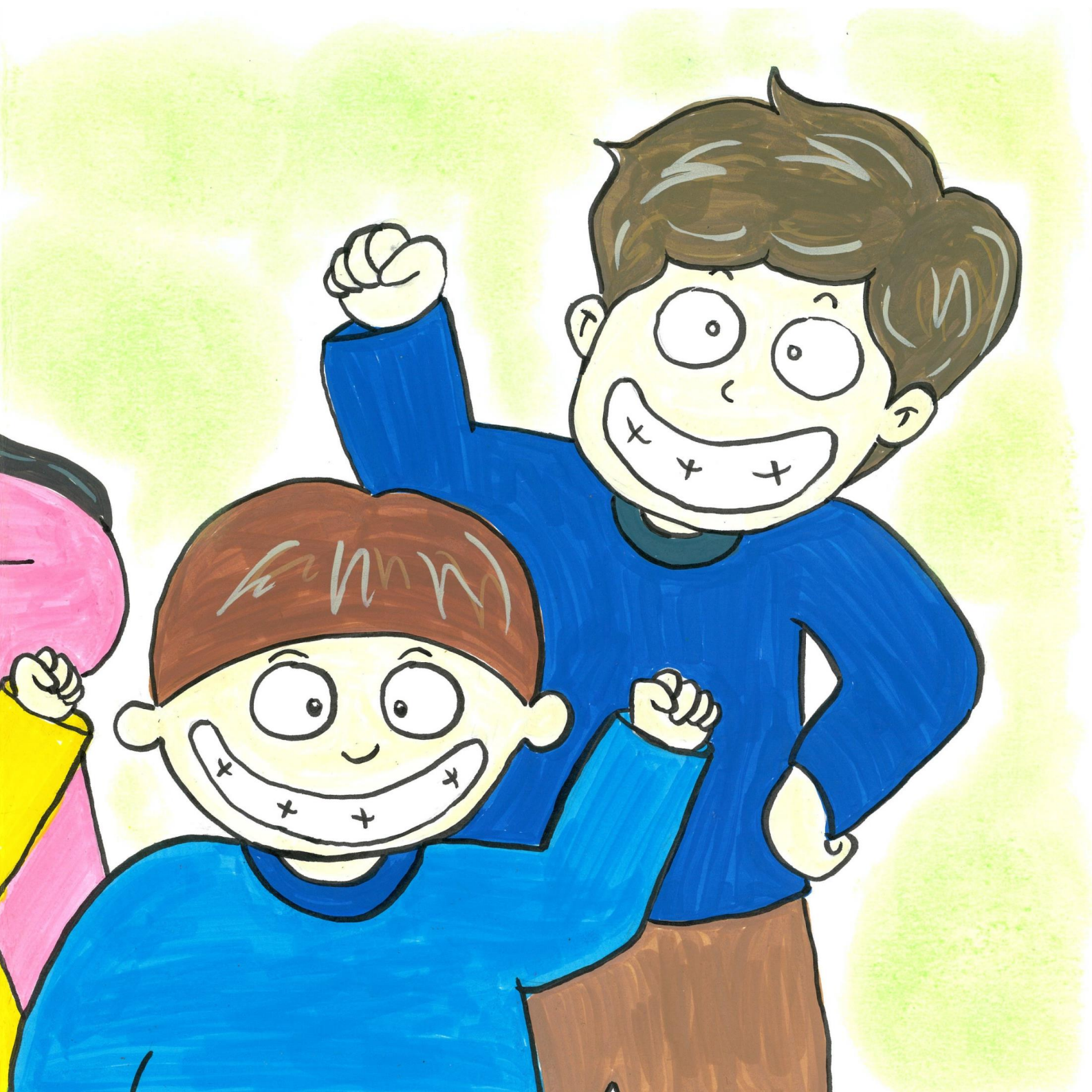
"으악~ 떨려~~!"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해냈어요~
내일도 떨리겠지만 괜찮아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는 해낼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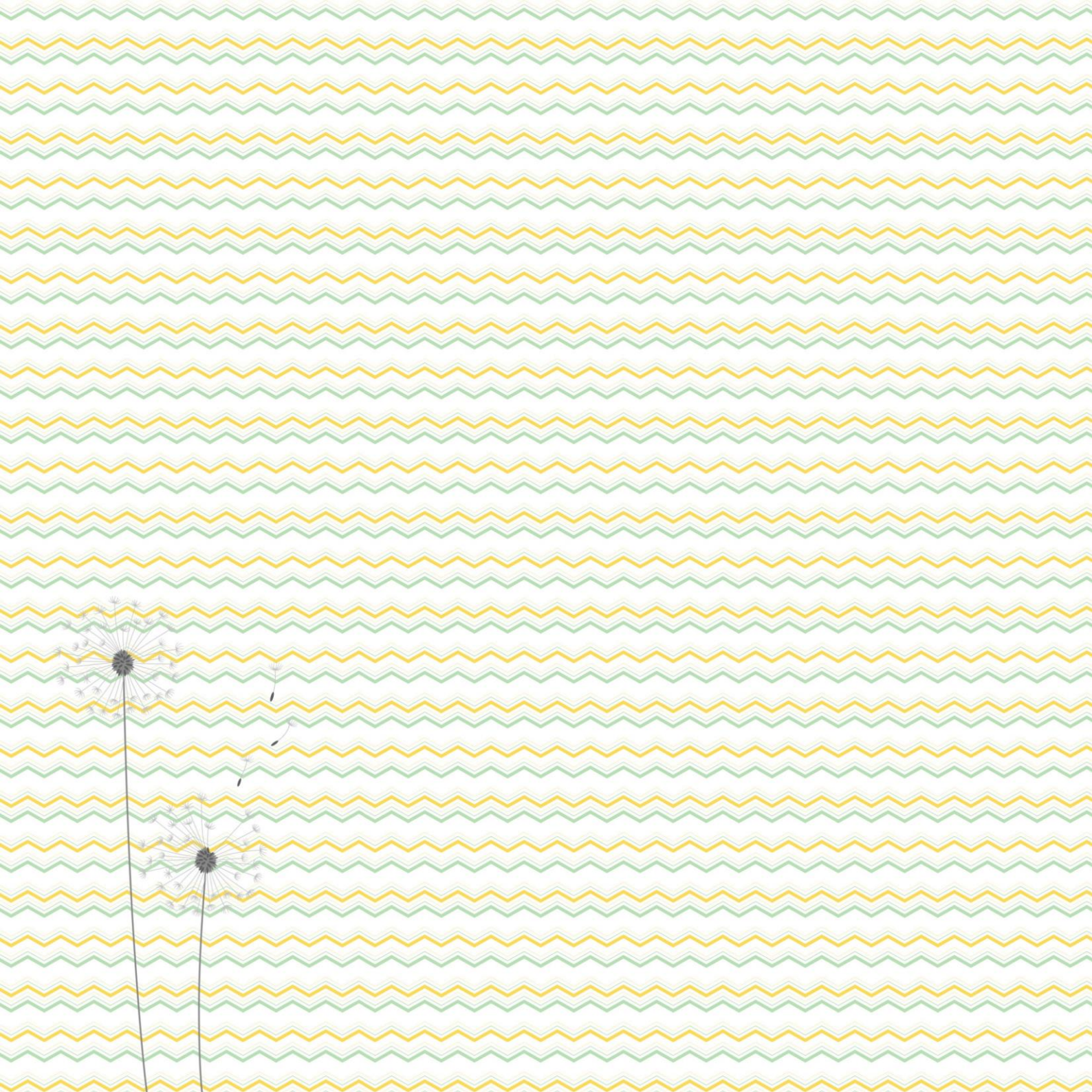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 가족만 떨리나??









인천은 읽^{read} 걸^{walk} 쓰^{write} 한다 ≡





안전은 **읽** **쓰** 합니다 <



전자책 읽기